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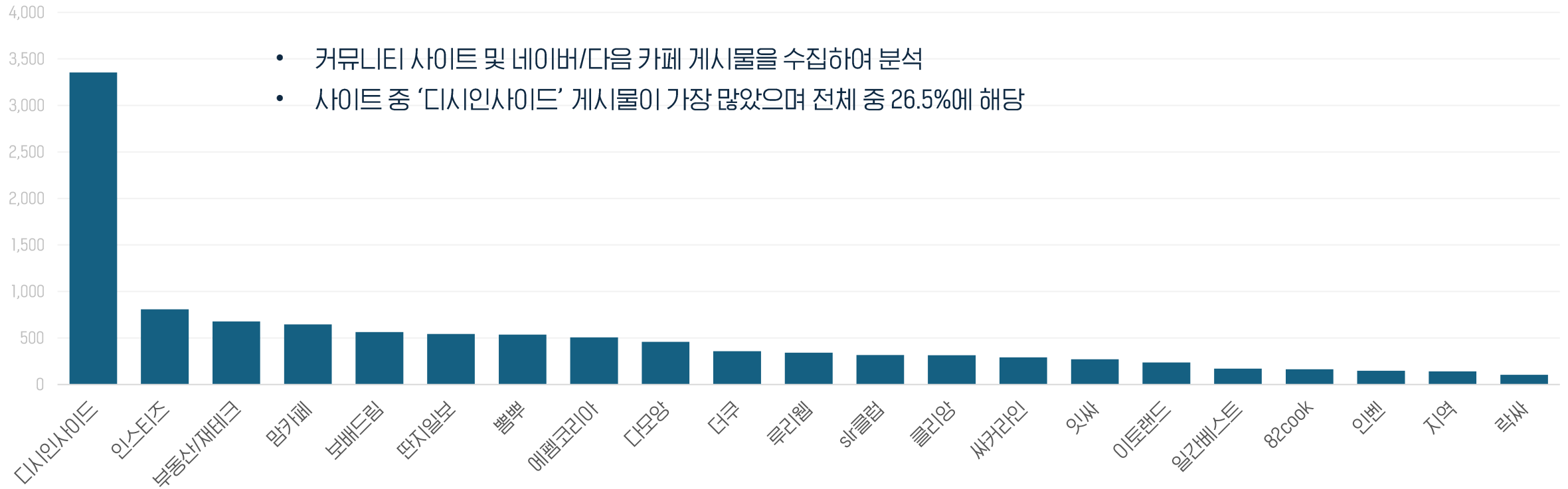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짧게 정리한 그 날의 SNS 분위기

2025. 01.

데이터 설계

- 데이터 수집일 : 2024년 12월 14일 하루치
- 데이터 수집 채널 : 인터넷 커뮤니티
- 데이터 수집 규모 : 12,658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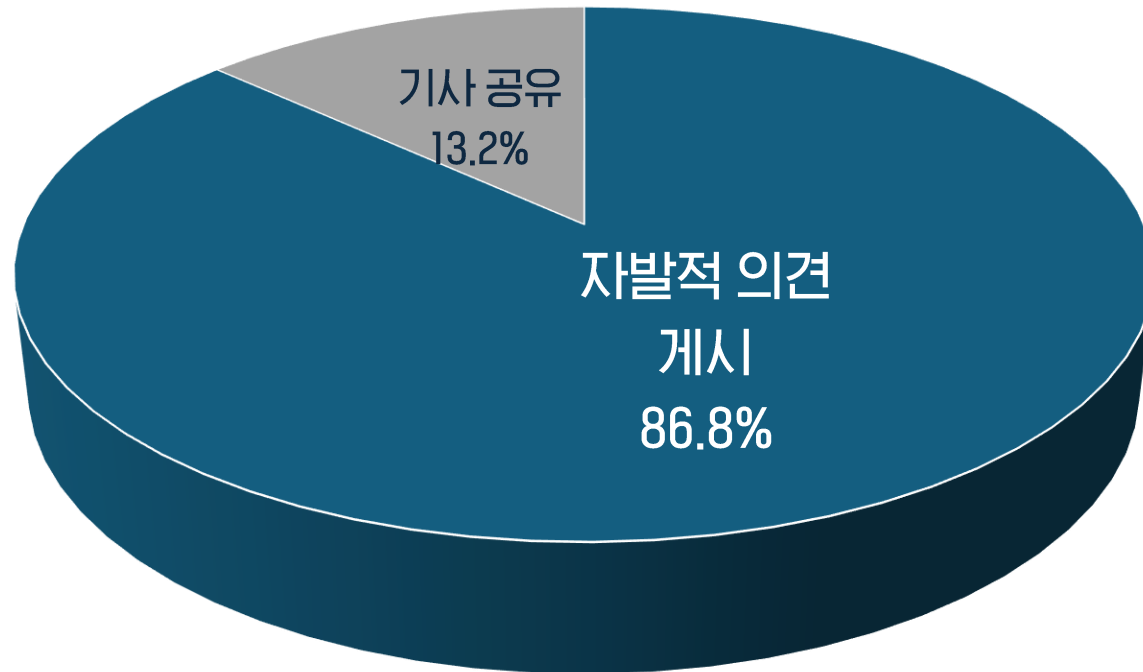
커뮤니티 채널명 및 그룹 유형별 정보량 추이



분석에 활용된 12,658건의 데이터 중
언론 기사를 단순히 공유한 정보 비중은 13.2%
자발적으로 의견을 게시한 비중은 86.8%로 의견 게시 압도적

SNS 게시물 중 '자발적 의견' 게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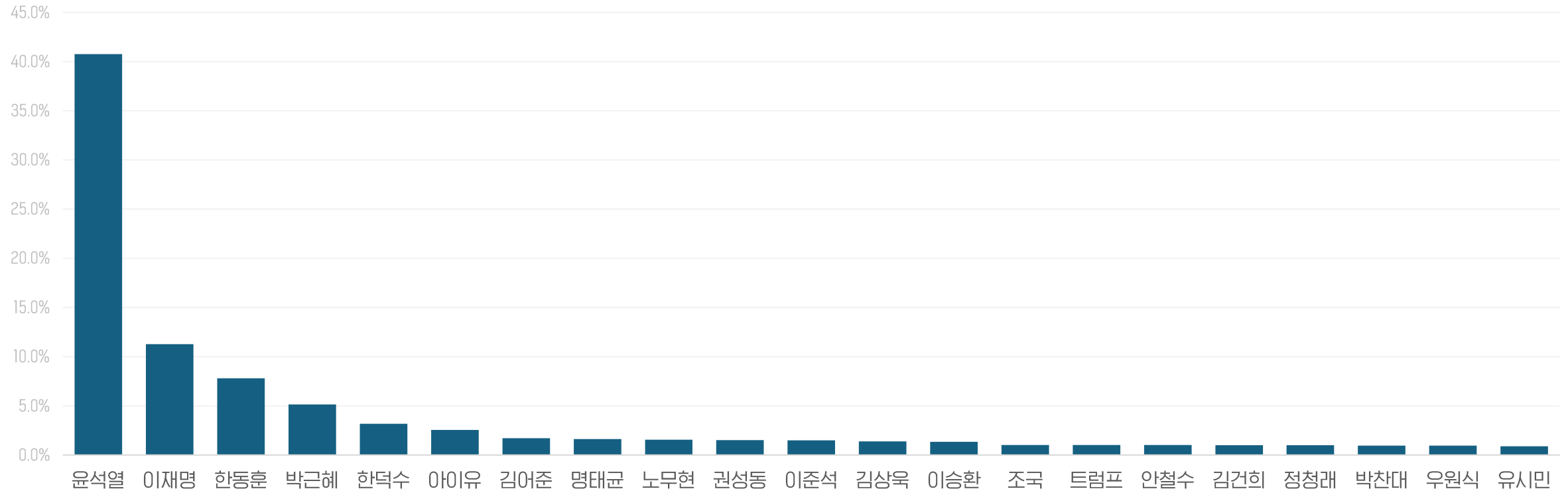
■ 자발적 의견 게시 ■ 기사 공유



자발적으로 언급된 게시물 중에서 언급된 인물을 나열해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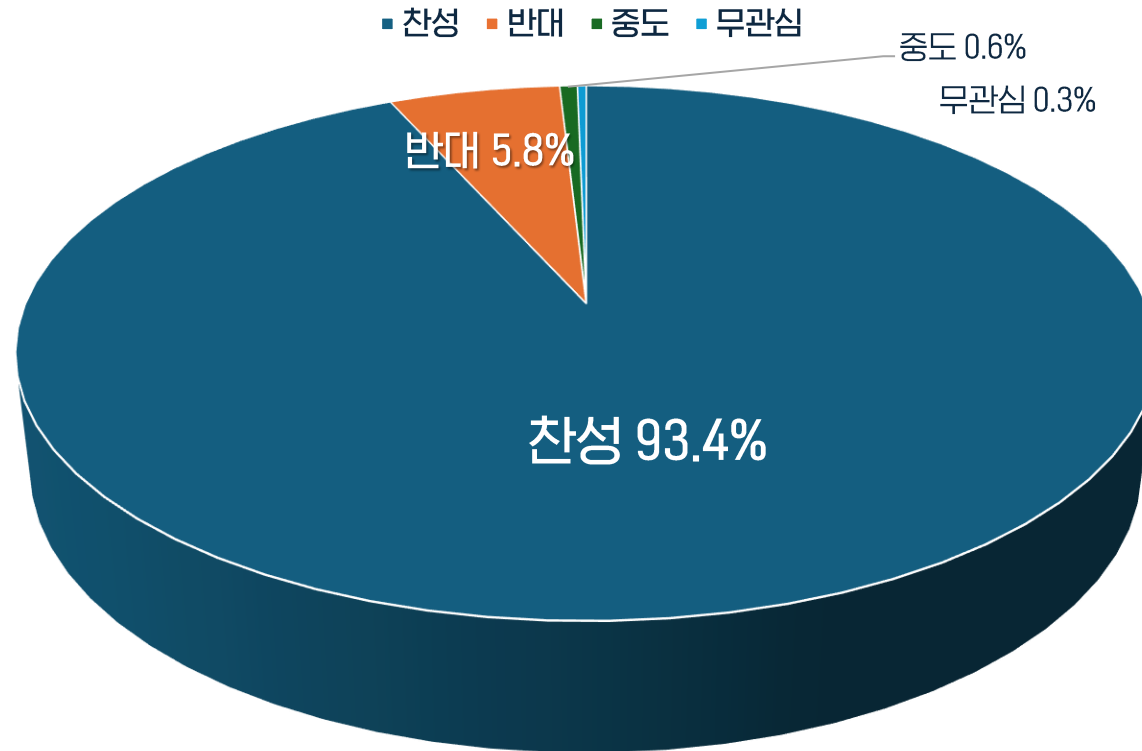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이재명, 한동훈, 박근혜 순으로 많이 나타남
정치나 사회 이슈 관련 인물 외에도 아이유, 이승환 등 가수에 대한 언급도 적지 않게 나타남

[언론 기사 공유 제외] 자발적 언급 게시물 중 인물 언급 비중



자발적으로 언급된 게시물 중 찬성/반대 여론의 비중을 보면
찬성이 93.4%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반대는 5.8%로 미미하게 집계

'자발적 의견' 중 찬성/반대 등 의견 비중



찬성/반대/중도 입장에서 일부 의견 발취

탄핵 내생에 다시보지말자...

3년 전 우리에게 대한 탄핵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20대에 탄핵 두번 겪는 사람이 나라니

7년전에 이어서 다시한번 한페이지의 퍼즐이 될수있어서 좋았습니다.

x세대는 탄핵을 이룬 mz세대에 빚졌다.

탄핵가결 기쁘는데 빠치는 기분 뭘줄 알지

탄핵이네요. 다음 대통령은 제발 잘 뽑읍시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먹살잡고 캐리합니다.

국가적 이득을 떠나서 얼른 탄핵 됐으면 좋겠는게
자다가 또 계엄령 터져있을까봐 은근히 신경쓰임

그래서 윤석열 탄핵 이유가 뭐임?

계엄 안했으면 나도 탄핵 반대였음 민주당이 이빠서 탄핵한게 아니야

기아가 우승하면 탄핵이 일어남 ㄷㄷㄷ 탄핵찬성 하지만 민주당도 심판받아야함

기아가 우승한 해에는 현대사에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 왜.. 탄핵시위하는거 봐도 무감각한걸까요 이 나라에 보수 진보가 어디있나? 그냥 당파 싸움이지

탄핵되든말든 상관없는데 담 대통령 좌파될까봐 좀 불안하긴함

근데 대통령은 국민투표하는데 탄핵은 왜 지들끼리 정함?

근데 민주당도 참 대단하다 3년 내내 탄핵만 발의하네 뽑았든 안뽑았든 정해진 대통령이면 임기때까지 좀 냅둬라

국민들 스스로가 무덤파고 있는 느낌 여러분!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탄핵 반대 집회 간 사람들은 국민도 아니다이거냐? 애국보수 탄핵반대시위 규모ㄷㄷㄷㄷㄷ

국힘 지지율 25%인데 뭐가 쫓려 탄핵 반대해라

부정선거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민들

20대 청년인데 정치에 관해서 물어볼게 있어요

오늘 탄핵 시위를 봤는데
찬성과 반대가 다른 종족 마냥 갈라졌더라고요

커뮤니티에도 서로 욕설과 비난의 글이 가득하고

“현실에서는 안그래!”의 영역을 벗어난거같은데

옛날 정치도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졌나요,
아니면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심해진건가요?

- 커뮤니티 사이트 내 어는 20대의 질문 -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12월 14일, 약 10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소추’는 공소를 제기한다는 의미이고, 국가 차원에서 탄핵을 결의하는 일이다.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현실에서 또 다시 ‘탄핵’이라는 글자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은 아주 슬프다.
또 그 이유가 난생 처음 겪어본 ‘계엄령’ 때문이라니.

이럴 때마다 SNS 반응을 살펴 보는 일은 정말 버겁다.

찬성이 몇 퍼센트고 반대가 몇 퍼센트인지를 떠나서, 한마디 한마디 개인의 생각들을 읽는 게 힘들다.

세상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아닌가.

여당과 야당, 남자와 여자, 노인과 청년, 여의도와 광화문, ...

우리는 언제까지 이 논쟁을 지켜 보고 추적하고 밝혀내야 하는 것일까. 안타깝다.

Data Lab

엠포스 데이터전략실

<http://bigdata.emforce.co.kr>

T : 02. 6177. 1871

Email : khbak@emforce.co.kr